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 News Letter 201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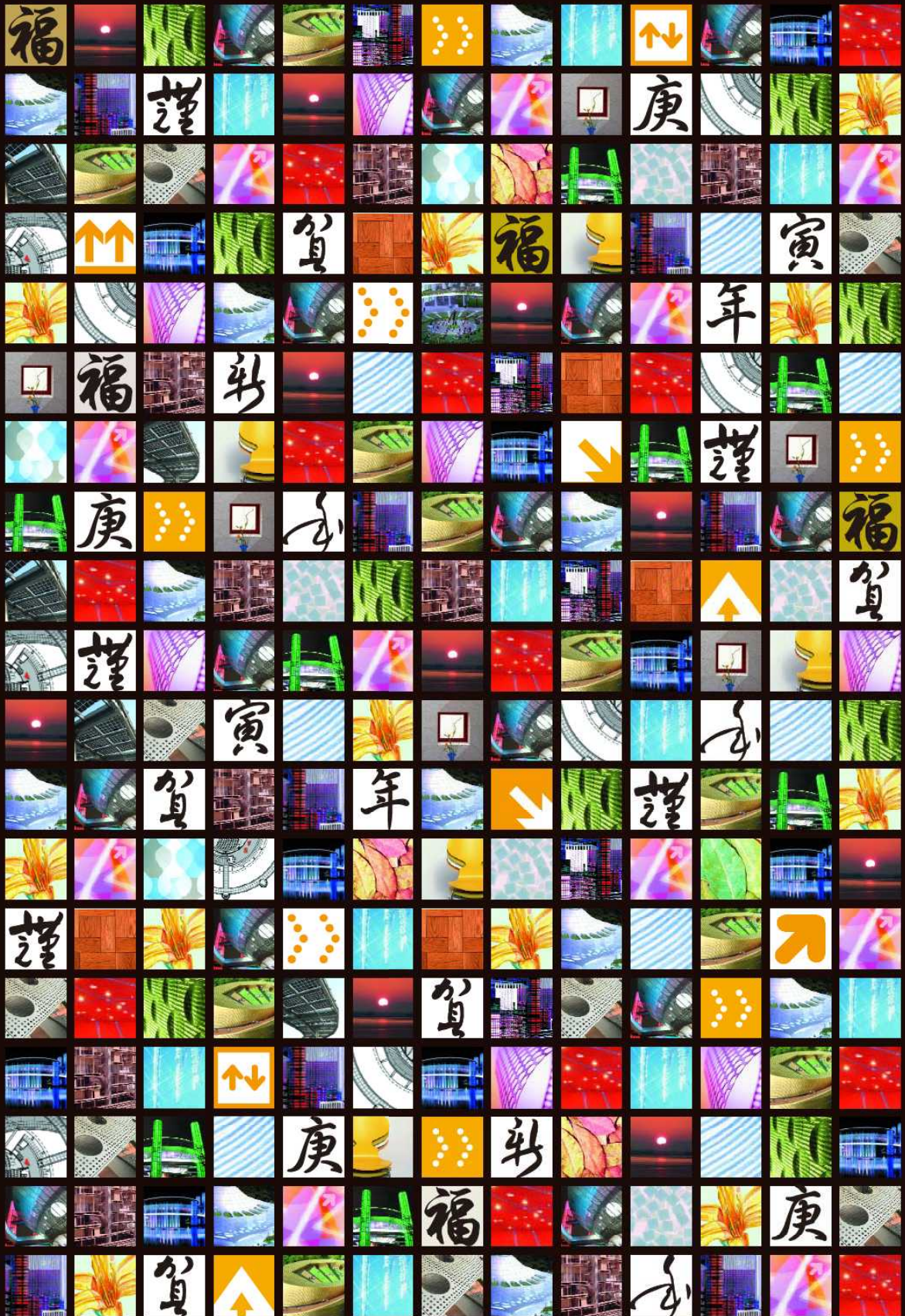
002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2010

실계경기/작품소개
영광문화예술회관 (주)유림엔지니어링, (주)그림 포 에이, (주)나우엔지니어링
제1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세계명예스포츠 추계전시판 (주)광우공진
학교소개/대학소개
광주대학교, 광주 전남 건축디자인 전문대학

시론/인터뷰
진실의 건축, 순환성 / 도시경관학과 디자인 이종근
도시공간/시민참여 프로그램
이첨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주민과 함께 소통과 문화가 있는 도시경관 만들기
「광주 건축 도시문화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폭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지역 건축사회를 대표하여
3개 지역 건축사 회장단이 함께 회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2010년 1월 1일 목포앞바다 / 사진 : 정태호 건축사 기자

진실의 건축



승효상 건축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기독교신자였다. 기독교 신앙이 독실한 부모님 덕으로 어렸을 때부터 종교는 내 생활과 밀접하였다. 집과 붙어있는 교회의 마당은 내 놀이터였고 교회당은 안식처였다. 심지어 교회당의 작은 방에서 공부하며 자랐으니 내 어린 시절은 교회생활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자연적으로 내 심성은 기독교의 분위기 속에 성립되었으며 神과 靈性에 관한 문제는 어릴 때부터 나에게 근본적 질문이 되었다. 그리고 건축가로 성장한 지금에, 이 문제는 내 건축 속에서까지 그 질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을 고백한다.

살아 있는 인간은 魂魄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魂은 영어로 spirit이라고 하며 魄은 soul이라고 한다. 이들은 같은 것일 수도 있으나 다를 수도 있다. Soul은 육체와 함께 움직이지만 spirit은 따로 움직인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soul)을 가지고 온 몸(body)을 다하여 어떤 일을 이루려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까닭이, 이 따로 노는 spirit의 작용 때문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다.

본래 타락한 존재인 인간의 혼은 惡靈(evil spirit)의 지배를 받으므로 聖靈(holy spirit)의 도움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도움 혹은 신의 권능을 꾸준히 갈구하며 스스로를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靈的 成熟이며 이는 바로 종교생활을 의미한다. 眞理 앞에 겸손하고, 義에 주린 자가 되고, 사랑에 목마른 자 되며, 和解와 一致에 앞장 서는 자 되라는 이 이야기는 내가 어릴 적 수없이 들었던 말이며, 그를 위한 節制와 儉樸한 생활은 당연한 규율이었다.

나는 학생시절을 한국의 암울했던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서 보냈다. 수 많은 학우들이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거리로 나갔고 더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한 나도 이 대열에 곧잘 동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반정부 학생 데모대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한 선배가 나를 불러 대열에서 이탈하여 건축공부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 선배도 건축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 대장이었던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나는 길거리와 광장을 떠나야 했다. (그 선배는 나중 결국 죽고 말았다.) 나는 모든 세상과 결별해야 했으니 오로지 건축만이 유일한 도피처였다. 길거리 함성이 크게 들릴수록 악을 쓰며 건축 속으로 파고들었다.

졸업한 후는 더 했다. 김수근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서 세상과 철저히 결별하고 살았다. 사무실에서 술한 날들을 밤새우며 몸을 혹사시켰고 더러 시간이 남으면 술 속으로 들어가 탐닉하며 스스로 정신을 잃게 했다. 자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내 생명을 지탱시켜 준 게 건축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이 종교였다.

군사독재가 끝나고 민주사회가 도래할 무렵 김수근 선생도 병환으로 별세했으니 나는 갑자기 승효상 건축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무려 15년 동안 김수근 건축을 추종했던 나는 이미 내가 아니었으므로 급격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러다가 두 개의 건축을 만나게 된다. 이는 내 건축을 찾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첫째의 건축은 서울에 있는 '종묘'이다.

서울은 600년 고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개발 지상주의자들의 광풍이 불고 지난 3,40년 사이 서울의 동양화적 아름다움을 왜곡된 서구의 도시이론으로 황칠하고 덧칠하여 도시는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고 고요한 풍경은 온갖 악다구니의 모습으로 개벽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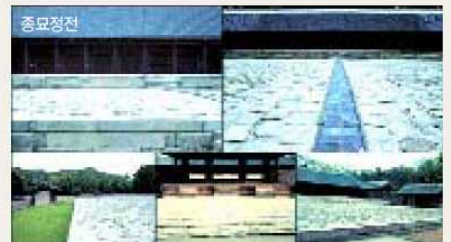
도처에 물신주의의 망령이 꿈틀대는 이 서울 속에, 그래도 부패한 서울을 끊임없이 정화시키는 장소가 있

으니 여기가 종묘이다. 종묘(宗廟). 서울의 한 복판 종로에 면해서 5만 6천여 평의 면적 위에 오늘날까지 그 기능을 잃지 않고 조선왕조의 신위들을 모시고 있는 이곳, 종묘는 일그러진 서울의 중심성을 회복하게 해 주는 경건한 장소이며 우리의 전통적 공간개념인 비움의 미학을 극대화하고 있는 건축이다.

유교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한 조선왕조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개국을 하자마자 경복궁의 양 측에 사직과 종묘를 만든다. 한양으로 천도를 한 이듬해인 1395년 9월에 종묘정전(宗廟正殿)이 7간 규모로 창건되었고 이후 몇 차례 증 개축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른다.

종묘성전은 우선 그 크기가 압권이다. 동서로 117미터 남북으로 80미터의 담장이 두른 이 정전은 예상을 갠 그 길이가 주는 장중한 자태가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정문인 남쪽의 신문을 들어서면 한 눈에 들어 오지 않는 길이의 기와지붕이 지면을 깊게 누르며 중력에 저항하고 있다. 지붕 밑의 깊고 짙은 그림자와 붉은 색의 열주는 이곳이 무한의 세계라는 듯 방문객을 빨아들인다. 일순 방문객은 그 위엄에 가득 찬 모습에 침묵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다.

일본의 한 건축학자가 이 건축을 보고 동양의 파르테논이라고 극찬하여 수 많은 일본의 건축가들과 학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기도 하며 동일한 감탄사를 토로했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파르테논 같은 외관의 장중함이었을 게다. 그러나 종묘정전의 본질은 정전 자체의 시각적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 바로 정전 앞의 비움 공간이 주는 비 물질의 아름다움에 있다. 굳이 비교하자면



新年辭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대가 도래 한다고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흔들어 놓던 새천년의 서막이 엇그제 같은데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바람처럼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세월 앞에서 한 시대의 정점을 살아왔던 사람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았고 삶의 궤적을 어떻게 남기며 살아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매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책과 부끄러움이 앞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늘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간 날의 회한과 아쉬움을 보살할 섶으로 오는 새해를 희망과 꿈이라는 이름으로 묵 지어 기다려봅니다. 더욱이나 어려웠던 지난 2009년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직인 우리 건축사들에게 참으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장기간의 불황이 계속 되었으며 우리의 업역을 45년 성년의 연륜으로만 지켜내기엔 너무나 버거웠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의 변화들을 주도하지 못해 황폐화 되다시피 한 환경에 버티기가 힘에 겨워 오랫동안 함께 한길을 왔던 많은 우리의 동료들이 무너져 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까닭이 첫째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우리의 무지이며, 둘째는 변화야 할 때 변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한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며 우리가 만든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삶의 가치와 자세가 미래의 우리를 결정하기에 오늘 현재시점(present)을 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이라 표현합니다.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이 달라 질 것입니다. 작금 우리는 힘든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이라는 선물꾸러미를 붙들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며 미래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면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결코 절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 스스로 기회를 발굴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2010년은 건축사 회원 모두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기회를 만드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춧돌던 단체통합의 물꼬를 터 우리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시대적 과업을 달성하고, 건축사 공제사업을 우리의 희망대로 반드시 관철시키며, 그동안 계속되어온 업역 확대에 관한 우리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건축사법의 개정이 우리의 요구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건축사회원 모두가 힘을 모으면 경인년은 기회의 때가 될 것이며 건축사의 무너짐을 보수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때가 될 것입니다. 정지된 가치를 움직이려면 많은 힘이 듭니다. 달리는 열차에 힘을 더 해줄 때 열차는 가속도를 내며 더욱 힘찬 약진을 계속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축사 회원 여러분! 어려운 위기 속의 대한민국 건축사협회회가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건축사협회의 변화에 힘을 모아주세요. 강을 건넌 뗏목으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를 어찌 건널 수 있겠습니까? 고비 많은 험산준령을 어찌 그 넓은 뗏목으로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커다란 패러다임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낙오되고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나를 자각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인 건축사의 품격과 지위를 회복하는 2010년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사업위에 소망하시는 풍요가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10년 새해아침

광주건축사회장 신 정 철
전남건축사회장 김 강 수
전북건축사회장 이 성 업



가이 없이 넓은 사막의 고요나 천지창조 전의 침묵과 비교해야 한다.

그렇다. 가로 세로 109미터 69미터의 월대(月臺)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비움 자체이며 절대적 공간이다. 1미터 남짓 하지만 이 지대는 그 사방이 주변 지면에서 울려오던 까닭에 이미 세속을 떠났으며, 담장 너머 주변은 울창한 수목으로 뒤덮여 있어 대조적으로 이 지역을 완벽히 비워진 곳으로 인식하게 한다. 마치 진공의 상태에 있다.

제관이 제례를 올리기 위한 가운데 길의 표정은 우리를 피안의 세계로 이끄는 듯 하며, 불규칙하지만 정돈된 바닥 돌판들은 마치 땅에 새긴 신의 지문처럼 보인다. 도무지 일상의 공간이 아니며 현대 도시가 목표하는 기능적 건축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물신주의와는 반대의 편에 있으며 천민주의와는 담을 쌓고 있다. 바로 이는 영혼의 공간이며 우리 자신을 영원히 질문하게 하는 본질적 공간인 것이다.

1990년 초 내가 내 정체성에 의문이 들었을 때, 이른 아침 이 중요정전의 비움 속에 스스로를 던지며 들었다. 탐욕을 지우고 혼돈을 견으며 저 깊이에서 들려오는 맑은 영혼의 소리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절대 무위였으며 궁극공간이었고 무한침묵이었다. 그것으로 나는 내 건축의 방향타를 옮겨 칠 수 있었다.

그 이후에 샌디에이고(San Diego)에 있는 소크연구소(Salk Institute)를 방문하게 된다. 루이스 칸(Louis Kahn)이 설계한 이 건축은 가운데 비어 있는 마당을 두고 두 연구동이 양 편에 도열하여 빈 공간을 태평양

으로 연결시킨 불후의 명작이다. 이 건축에서 이 비움의 마당은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시각에 따라 변하는 태양과 그 태양이 만드는 그림자의 농도와 깊이에 의해서, 변하는 계절에 따른 하늘의 색깔에 의해서, 기후에 따른 바다와 하늘의 변화하는 표정에 의해서 비워진 마당은 수시로 다른 표정을 갖는다. 그리고 방문하는 이들의 주장과 관념에 의해서, 거주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변하는 기쁨, 노여움, 사랑, 즐거움에 의해서 채워지고 또 비워진다.

좋은 건축과 건강한 도시는
우리 삶의 선함과 진실됨과
아름다움이 끊임없이 일깨워지고
확인될 수 있는 곳이며,
그것은 비움과 고독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이 마당은 더불어 무한히 열려있으며 때로는 어두운 색으로 변한 하늘의 벽으로 닫혀진다. 아마도 일몰의 시간이면, 태평양의 수평선은 불타는 벽으로 나타날 것이며, 하루의 이 마지막 시간이야말로 칸이 줄곧 추구 해 온 절대 공간, 본질적 공간에 가장 근접해 있는 건축의 정점미일 것이다. 실로 이는 비움이 갖는 절대 미학이었으니, 수 천년 동안 채우기를 목표 삼아 온 서양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비움, 이 용어는 이제 서양의 현대건축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건축의 키워드가 되어 있지만, 이는 본디 우리의 선조들의 상용어였으며 우리의 옛 도시와 건축의 바탕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비움은 추방해야 할 구악이 되었고 채우기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 도시는 악다구니하는 한갓 조형물과 건조물로 가득 차고 말았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그래서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것 아닐까.

좋은 건축과 건강한 도시는 우리 삶의 선함과 진실됨과 아름다움이 끊임없이 일깨워지고 확인될 수 있는 곳이며, 그것은 비움과 고독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물신의 탐욕이 과도히 지배하는 이 시대에 잃어버

렸던 우리의 고독을 다시 찾아 이를 마주하고 우리의 근원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비워진 곳, 그런 비움의 도시가 결국 우리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것이며, 종묘의 마당은 이에 선언이었고 소크연구소는 그 증명체였던 것이다.

그렇다 도시와 건축의 아름다움은 채움에 있지 않고 비움에 있다.

나는 이 두 건축을 대하면서 온 몸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내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는 그들의 언어가 아니었다. 내가 어릴 적 항상 나를 평화하게 했던 나의 언어였고 나의 몸짓이었던 것을 다시 깨달았던 것이다.

모더니즘의 퇴조 이후, 우리 시대를 이끄는 중심적 사조가 사라졌다.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사조가 전 세계를 주도적으로 자리잡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정보를 독점할 수 없는 시대인 한, 백가가 쟁명하는 때이며 만인이 만인과 투쟁해야 하는 때다. 그래서 인지 건강한 담론이나 중심적 철학의 논의 보다는 우리의 촉각과 시각을 자극하는 건축과 도시가 앞 다투어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이유없이 뒤를리고 비물어지며 기발한 재료로 싸고 감으며 요란한 색채로 장식하여 땅을 유린한다. 이게 현대건축의 주류처럼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건축이 껍데기를 붙잡고 이리저리 둘러대며 현혹하여도, 물신에 유혹당해 온갖 모양으로 뒤물려 우리의 감각을 자극해도, 그것은 육체에 한정된 일일 뿐이며 본질이 아니다. 그 속에 건강한 영혼은 거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건축은 우리를 성숙시켜줄 수 없다. 영혼이 거주할 수 없는 건축, 그것은 박제이며 세트일 뿐이다. 건축 속에 영혼이 거주하게 되면 그 건축은 장소를 떠나고 시대를 떠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그 건축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기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며 언제든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특별히 이 미숙한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며, 그런 건축을 진실의 건축이라고 부른다.

『광주 건축·도시문화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폭 입장인원이 전년보다 3배를 훌쩍 뛰어넘어...



유난히 관심을 끌었던 「건축·도시 그림그리기」

재발견 (Re-discovery)

올해로 6번째를 맞는 2009년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지난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광주광역시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문화제는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건축과 우리가 숨 쉬는 도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재발견」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문화제는 크게 전시행사와 학술행사 그리고 부대행사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전시행사는 2009년 광주의 아름다운 건축문화와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광주광역시 건축상」과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에 대한 수상작 전시, 건축과 도시의 사실적인 풍경을 화면에 담아낸 「사진공모전」과 「그림그리기」에 대한 입상작 전시,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 초대전」과 「건축모형 작품전」, 프랑스 문화진흥원에서 선발전 「해외건축전」, 건축전문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사례인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이 지역 건축전공 대학생들의 항학열을 살펴볼 수 있는 「우수 학생작품 전시」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학술행사로는 세 차례의 「건축문화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부대행사로 건축인의 화합을 위한 「건축인의 밤」, 건축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건축상담코너」, 신개념 자재를 비롯한 다양한 건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4회 광주건축박람회」 등이 함께 이루어졌다.

2009년 건축인의 밤

「제6회 광주 건축·도시문화제」는 지난 11월 18일에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건축인의 밤」 행사로 시작되었다.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추진위원장 김익시 교수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장, 신정철 광주건축사회장, 최종만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강박원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및 후쿠오카 건축가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내빈들과 건축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이 행사에서는 2009년도 광주광역시건축상 시상식, 광주건축인 선언문 낭독, 자랑스런 건축인 추대(故 채규당 건축사), 광주·후쿠오카 교류 10주년 기념지 및 광주건축지도 발간보고 등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건축인들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 창조라는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세 차례의 건축문화 심포지엄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건축문화 심포지엄이 3회에 걸쳐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건축문화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해를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연하는 형식으로 마련되었는데, 첫째 날인 19일에는 천득염 전남대학교 교수가 「광주·전남 전통문화의 특성」을 주제로 남도문화의 7가지 특징을 알기 쉽게 강연하였고, 20일은 임권택 영화감독이 그동안의 작품활동과 인생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미의 재발견」을 진솔하게 강연하였으며, 21일에는 김상대 고려대학교 교수가 높은 곳을 향한 인간의 갈망을 「초고층과 도시문화」라는 주제로 풀어냈다.

최초로 발간된 「광주건축지도」

또한 이번 문화제에 즈음하여 광주의 건축 자산들을 일목요연하게 안내하는 「광주건축지도」가 발간되었고, 우리 광주와 일본 후쿠오카 건축인들의 교류 10주년을 맞이하여 「교류는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기념지가 발간되었으며, 건축문화에 대한 정보공유와 일반시민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월간지 「건축문화사랑」이 창간됨에 따라 2009년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그 어느 해보다 뜻 깊게 치러졌다.

그중에서도 이 지역 최초로 발간된 광주건축지도는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광주광역시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발행한 광주건축지도에는 일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전통건축물과 근현대건축물 및 조경시설물이 5개 지구별로 안내지도에 표기되어 있고, 간단한 해설도 곁들여져 있다.

광주건축지도를 살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역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소개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다."라며, "관광안내 책자처럼 광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다보니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라며, 첫 시도라는 의미에 그치지 말고 제기되고 있는 모든 아쉬움을 아우르는 증보판 또는 개정판이 조속하고도 지속적으로 발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가보고 싶고, 찾아가기 쉽고, 찾아가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예방 광주·문화수도광주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광주건축지도로 발전하기를 시민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뜨거운 시민들의 관심

이와 같이 풍성하게 준비된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매우 뜨거웠다. 건축종사자들과 일반시민들은 물론이고 건축학 전공을 희망하는 중등학생들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어린 꼬마들의 발걸음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시민들의 관심은 입장객 집계에서 여실히 나타났는데 2009년도 입장객은 40,300여명으로 2008년도의 12,300여명에 비해 3배 이상 폭증했다.

6회째에 이르기까지 모든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지켜보았던 광주건축사회 김재성 사무국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건축도시문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시민들의 축제로 자리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전원주택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부 김아무개(여, 49, 용봉동)씨는 "경제적인 현실이 전시된 작품에 미치지 못하여 혼란만 가중되었다."고 했고,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이아무개(남, 17세, 소촌동)씨는 "건축설계과정을 알 수 없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으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최아무개(남, 44세, 문흥동)씨는 "매년 큰 기대를 걸고 찾아오지만 아직은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했다.

따라서「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시민들의 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들에게 좀 더 다갈 수 있도록 건축인 모두가 평소에도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풍성하고 유익한 문화제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취재: 서재형 건축사 기자 (archiseo@lycos.co.kr)
사진: 정태로 건축사 기자 (y10101@naver.com)



「광주 건축·도시문화제」개막식



심포지엄 스케치 (순천대 이태연)



제4회 광주건축박람회



작품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

광주광역시에서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89년부터 건축상을 시상했다. 본 지면에서는 2009년 '제1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건축인들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2009년 제1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

• **금상** 세계 광엑스포 주제전시관

- 은 상 4D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문화여성병원
- 동 상 북구 청소년수련관 별관, 리마다 프리자호텔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RUMI-BOWL
- 光엑스포 주제관 "빛으로의 초대" -

- **작품명** : 세계 광엑스포 주제전시관
- **위 치** : 서구 치평동 1163-2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
- **건축주** : 광주광역시
- **설 계** :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조성호 건축사
- **시 공** : (주)남광건설 · (주)우용건설
- **자료제공** : (주)광주공간



주제관 주경



주제관 야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내 위치한 광 엑스포 주제관 **Light Rium**은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급속히 발전하는 광산업의 구심점으로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제안한다. 여기서 Light Rium은 Universal+Light +rium을 합성하여 만든 애칭으로 빛에 관한 모든 것을 전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빛의 도시 연합(LUC) 회의에 맞춰 계획된 이 주제관은 빛의 근원인 우주와 행성의 이미지에서 형태를 유추하여 빛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상징할 수 있는 독창적인 건축물로 승화시키고자 했다.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광엑스포 행사장의 전반적인 모습, 아간의 별과 빛, 각종 행사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로서 옥상광장을 제안하였고, 옥상정원으로 이어지는 보행데크를 입체적으로 계획하여 다양한 공간체험이 가능하도록 수직동선을 연출하였으며, 놀이터를 도입했다. 그리하여 공원 속에 영구히 남게 될 주제 영상관이 행사기간뿐 아니라 사후에도 시민들의 즐거운 휴식처와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 ▲ 경관조명 ▲ 빛기둥
- ▼ 동축면도 ▶ BIPV시스템



우주의 형태 - 유추하기 - 형태의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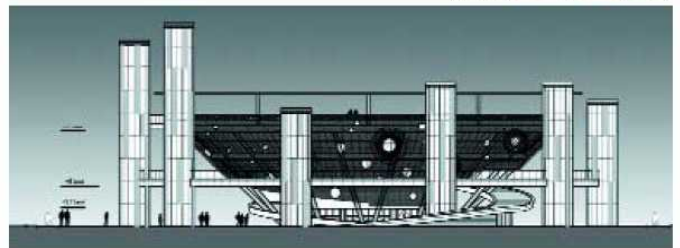
운석의 표면 - 틀에담기 - 이미지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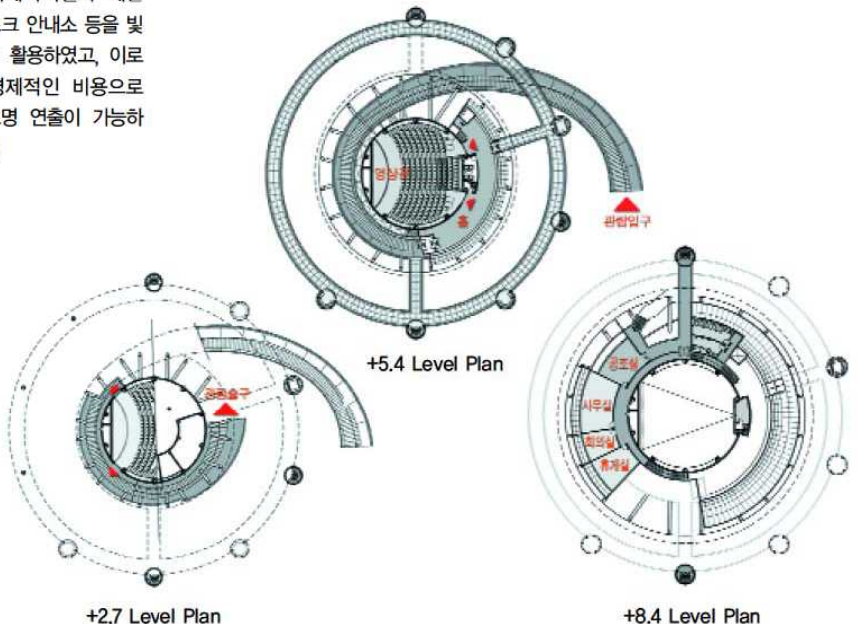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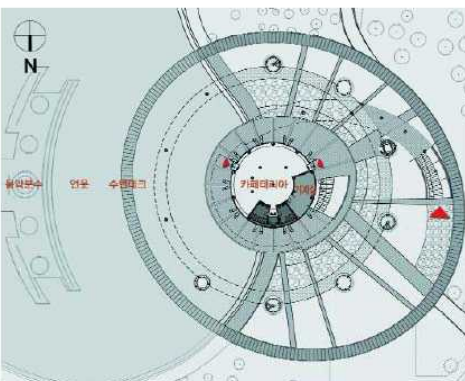
은하이미지 - 요소선택 - 빛의타워변형

또한 3D영상관은 입구(3층)와 출구(2층)를 완전히 분리하고 별개의 경사로로 진출입이 가능하게 계획하였으며, 홍보 및 기념품 판매 공간은 1층에 배치함으로써 간결한 동선처리를 추구했다.

특히 빛고를 광주를 상징할 만한 빛아트를 구현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실과 계단실, 키오스크 안내소 등을 빛의 타워로 활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비용으로 다양한 조명 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배치도





이종근 과 장
광주광역시 도시건축국 도시디자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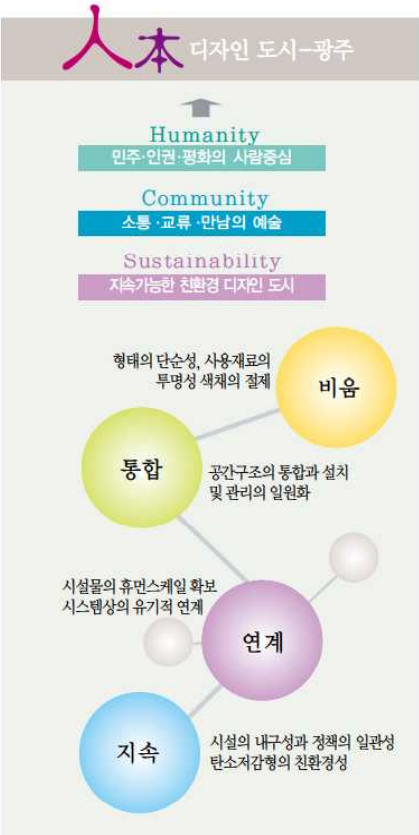
도시경쟁력과 디자인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와 도시들 사이에서 개발과 성장뿐 아니라 문화와 디자인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통해 도시를 마케팅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도 「인본디자인 도시-광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디자인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2008년 7월 도시건축국 산하에 도시디자인과를 설립, 적극적인 디자인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 이에 건축문화사랑의 편집장인 박홍근 건축사가 광주광역시청 도시건축국 도시디자인과 이종근 과장을 탐방하여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박홍근 편집장

인본디자인 도시-광주란 무엇입니까?

광주는 학생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을 도시의 정신적 자산으로 삼아 인본(人本)도시를 자랑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의 바탕은 '사람을 위한 세상'을 이루고자 함에 있었으며,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이념은 이와 같은 역사적 전통을 밑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겪으며 인본도시의 전통과 정신 보다는 차량 중심의 도시공간을 만들어 사람의 공간을 축소하고 소외시켜 왔습니다만, 이제는 차량 중심의 도시 조성을 지양하고 '사람 중심의 공간조성'으로 인본디자인도시 광주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본디자인 도시-광주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보도, 공원, 광장 등 사람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 편리한 도시, 활력 있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시 공공 시설물에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공공 시설물, 건축물, 공간 등이 도시의 역사가 되고, 상징이 되고, 문화 자원이 되도록 할 것이며, 넷째, 시민 모두가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사람중심의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도시흐름은 문화와 디자인을 통한 마케팅의 시대라고 하셨는데 어떤 도시가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는, 도시 안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도시의 외적 매력과 특성을 반영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가 앞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매력과 특성을 살린 소위 "광주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러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조에 목표를 두고 각종 사업들을 시행해 왔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연장선 속에서 비움, 통합, 연계, 지속이라는 도시디자인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인본디자인도시-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2009년 6월 18일 「인본디자인도시-광주」 선포식을 개최하였는데 2010년에는 「인본디자인도시-광주」 선포 1주년을 맞아 인본디자인도시 포럼을 구성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전문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도 운영하여 우리시의 디자인 정책과 도시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업도 병행할 것입니다.

광주시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의 의미를 시행하고 있는데 심의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설계자의 창작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획일적인 형태에서 벗어나는 창조적인 디자인을 유도하려합니다. 또한 무의미한 장식, 디자인 요소들의 과도한 혼용으로 인한 이질감을 최소화하며,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는 웅벽,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등 권위적이고 폐쇄감을 주는 요소는 지양하려합니다. 더불어 강조색을 사용할 경우 사용비용 및 바탕색과 보조색과의 조화를 살피며, 유니버설디자인 및 기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를 권합니다.

◎ 공공디자인 심의 전후 사례



▶ 주요 심의내용
- 건물 장식요소가 과도하므로 삭제
-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디자인만 설치

◎ 동구 '음식의 거리' 가로등



▶ 주요 심의내용
- 가로등의 과도한 조형요소들이 기존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등과 겹쳐 시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우므로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단순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함

공공디자인 심의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2009년 1월에 시작하여 매달 공공디자인심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은 모두 이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시행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걸음마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화는 객관적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으나 디자인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년간 운영해오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취합 검토하여 더욱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의 디자인 사업에서 건축사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디자인이라하면 산업디자인이 디자인의 전부라는 인식이 있는 듯한데 그보다도 공공디자인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웅벽개선사업으로서 웅벽에 그림을 그려 일시적으로 감춰버리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웅벽을 없애고 정원을 만들어 새로운 삶을 담아주는 도시디자인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의 중심인 건축사들이 디자인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광주다운 건축문화 형성에 기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신영은 건축사 기사 (archsyne@naver.com)



주인과 함께



2009년 12월 18일, 광주예술고등학교에서는 공연과 함께하는 준공식 '얼싸구! 우리 동네'가 한바탕 어우러졌다.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소통과 문화가 있는 도시경관 만들기' 프로그램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경관 취약지 개선 시범사업' 대상지로 광주예술고등학교 콘크리트옹벽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은 (사)도시연구소 시중의 주관으로 주민과 함께 진행되었다.



▲ 소통과 문화가 있는 도시경관으로 변모한 광주예술고등학교



▲ 삭막하며 길고 지루한 변경 전의 옹벽



▲ 진지한 도시경관 수업-경계의 재해석

민·관·산·학의 거버넌스 완성

그동안의 사업 발주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설계역역 완료 후 공사 발주를 하는 형태로서 주민들은 배제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정착 주민들은 자신의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발주방법부터 달랐다. 관청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공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감성적 이해와 눈높이로 접근하였으며, 여기에 학교교육까지 접목시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방법으로 광주 거버넌스를 완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소통을 방해하는 옹벽

우리가 사는 도시를 거닐다 보면 너무나 획일적이고 콘크리트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것을 접하다 보면 황량하고 폐쇄적이며 거기에다 위압적이기 까지 한다. 이러한 시설물 중에 특히, 옹벽은 도시의 경관을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옹벽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옹벽이란 것이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도로를 만들거나 대단지 개발을 하면서 높이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설물들은 너무나 당연히 생겨왔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도시풍경을 삭막하게 하는 주범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이런 시설물은 단지 도시의 풍경을 황량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뒷동네와 아랫동네의 단절을 가져오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을 방해하여 도시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인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통과 문화가 있는 도시경관 만들기'

그동안 도심의 옹벽에 대한 개선방식은 그림을 그리거나 담쟁이를 비롯한 녹화사업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우리 건축사들은 개선방식을 도시적 측면과 공간해석을 통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동안 진행해 온 대안은 주로 보기에 좋은 치장 위주의 방법이었으나, 이제는 도시의 근본적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단절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도시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를 치유하는 개념으로서 공간적 재해석이 필요했다.

그러한 관점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와 주민,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소통과 문화가 있는 도시 경관 만들기'라는 표제로 광주예술고등학교 옹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길고 지루하며 삭막했던 옹벽을 철거함으로써 주변경관 및 주민과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사회적·문화적으로 촉매제 역할을 하는 융통성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 - 경계의 재해석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먼저 전남대학교와 광주대학교 그리고 호남대학교 건축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과 공유공간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현장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경계의 재해석'이란 주제로 진행된 현장교육을 통하여 예비전문가(대학생)들에게 도시 만들기에 대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결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였다.

공공문화 프로그램 - 굿바이! 옹벽

또 '굿바이! 옹벽'이라고 명명한 공공문화 활동을 통해 그 공간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민과 예술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지역 아동들에게 자기 동네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참여는 자신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고, 사업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유지관리의 주체가 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었다.

개선 프로그램 - 풍요로운 도시 만들기

그리고 실제적인 개선 프로젝트는 전문가가 나서서 디자인과 시공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도시의 새로운 공공장소는 운암3동 동네의 중심이 되고, 지역 주민에게는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공간의 사용주체인 지역주민과 아동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학생,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교수와 건축사 및 조경업체를 포함한 각종 전문시공회사, 도시의 미래를 이끌고 갈 대학생 등 각계 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이론성과이기에 더욱더 뜻 깊고 값진 프로젝트였다. 또한 LG 친환경 합성목재를 판매하는 동화테크의 후원도 이 프로젝트의 완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 진행으로 민·관·산·학의 거버넌스가 완성되고, 우리 동네에 대해 진정어린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며, 결국 도시공동체를 이룸으로서 각자의 삶 또한 풍부하게 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순미 건축사 도시연구소 시중 연구소장 (migaon@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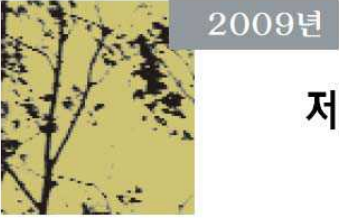
▲ 주민과 학생 그리고 아동들이 함께 어우러져 벌인 공공문화활동 '굿바이 옹벽'



▲ 철거한 옹벽자리에는 경사로와 계단이 들어서고, 남은 옹벽에는 나무 옷을 입혔다



▲ 자동차가 뒤섞인 위험스런 통학길은 보행로와 차로로 분리



2009년

제 5회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3개 부문선정

시청자미디어센터, 수완지구 우미 린 아파트, CADIZ커피숍

지난 2009년 11월 비영리민간단체인 나무심는 건축인과 광주광역시 공동으로 주관하여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찾아 시상하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공부문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아파트부문에는 '수완지구 우미 린 아파트', 민간부문에는 'CADIZ커피숍'이 선정됐다. 당선된 건축주에게 광주시장상이 수여되는 한편, 시설물에는 기념동패가 부착되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서구 금호동)



수완지구 우미 린 아파트 (평산구 수원동)



CADIZ커피숍(북구 오치동)

공공부문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외부공간인 광장에 조경시설을 마련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자연의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자연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을 받았다. 아파트부문의 '수완지구 우미 린 아파트'는 연못을 마련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그린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부문의 'CADIZ커피숍'은 그린 네트워크를 통해 건축을 전체에 친환경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방문자와 이용자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유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나무심는 건축인'과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는 비영리민간단체 '나무심는 건축인' (대표 강남구 건축사)은 나무를 심는 일을 주도하는 한편 그 개념을 확장하여 광주라는 도시공간을 아름답게 가꾸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같은 취지로 '나무심는건축인'은 지난 2005년부터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한 시민이나 단체를 찾아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을 제정해 수여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당초에는 '나무심는건축인' 주최로 생기가 넘치는 푸른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푸른공간상'이라는 명칭으로 제정했는데 2005년에 광주광역시의 제안으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러한 나무심는건축인의 아름다운 도시공간 가꾸기에 대한 열정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어 벤치마킹되기도 했다. '푸른공간상' 제정 1회 당시에 한국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이 광주에 내려와 푸른공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디어를 제정한 상이 바로 전국으로 확대한 '공간문화대상'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이기도 하다.

광주지역의 건축사와 건축분야 교수, 공무원, 일반인 등이 참여해 나무심기와 심포지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나무심는 건축인은 '나무를 심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환경을 파괴하는 건축이 아닌, 사람 사는 인본주의 건축과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공공의 건축을 지향하며 문화수도 광주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기준 건축사_나무심는건축인 사무국장

2010년 제6회 작품모집

지난해 5회째를 맞은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나무심는 건축인'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문화수도에 걸 맞는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경관 자원을 보전하고 장려하기 위해 매해 실시하고 있다. 도시 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공간들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공유토록 하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은 시민들의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한편,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광주 도시건축문화제에 전시되기도 하였다.

2010년에도 공개공지, 가로 및 썬지공원, 담장, 골목길, 옥상녹화, 야간경관 등 다양한 경관자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파트부문, 민간부문으로 나눠 작품을 모집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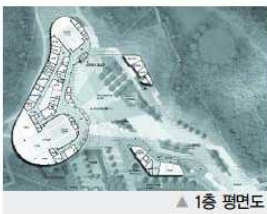
"영광문화예술회관"건립 설계경기공모결과 (주)유탕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당선작으로, (주)그룹 포에이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우수작, (주)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가작으로 선정됐다. 총 17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5,752.03㎡ 규모로 건립된다. 당선안은 사람/자연/문화/길이 이어지고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천년의 빛 영광의 태양을 모티브로한 상징성있는 건축물로 계획되었다.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공모



| | |
|-------------|-----------------------------------|
| 당선작 | (주)유탕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김종일, 양병범, 오금열 |
| 대지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76외 17필지 |
| 대지면적 | 29,499㎡ |
| 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
| 연면적 | 5,752.03㎡ |
| 건축면적 | 3,666.95㎡ |
| 건폐율 | 12.43% |
| 용적율 | 14.43% |
| 층수 | 지하1층 / 지상2층 |
| 최고높이 | 24.0M |
| 구조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
| 주요마감 | 목재무늬패널/금속패널/판석T24복층유리/유글레스 |
| 주차 | 174대 (대형주차, 장애인주차포함) |
| 조경 | 10,318㎡ |



우수작 (주)그룹 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박동준



가작 (주)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나승문



학교소개는 우수건축인 양성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하였으며, 먼저 5년제 건축학과를 광주·전남·전북 등 소재지역로 구분한 후 학교명의 한글 순서로 게재한다. 기사내용은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기 바란다. (편집자 주)

광주·전남지역 건축디자인 명문대학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체계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능력있는 건축가 양성**

건축설계 공모전에서의 뛰어난 수상실적 및 우수한 실무적응력

광주대학교 건축학과는 1987년 건축공학과로 개설된 후, 1999년에 건축학과로, 2000년에 건축학부(건축학 4년제+건축공학 전공)로, 2005년에 건축학전공이 5년제로, 2007년부터 5년제 단일 건축학과 체제로 전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 학과는 [능력있는 건축가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학생들의 건축디자인 및 관련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매우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왔으며, 그 결과 매년 건축설계 공모전에서 뛰어난 수상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건축설계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높여왔고, 최근 들어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 서울의 유명한 건축설계사무소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수진과 건축설계 중심의 교육

교수진은 국내의 대학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7명의 전임교수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의 우수한 건축가들을 겸임교수로 초빙하여 건축설계실무에 대한 적응력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설계스튜디오실 1~6, 플로터실, CAAD실, 조형실습실, 건축문화 및 이미지정보실, 건축구법재료실습실, 건축구조실습실 등 건축의 원리와 설계에 대해 학습하고 실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여건과 함께 향학열을 높이기 위해 학과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인1좌석 시스템을 구비하여 필요시 설계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설계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플로터 출력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아리활동과 건축작품전 준비에 소요되는 금액 일부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능력 향상을 위해 항상 최신 버전의 AutoCAD, 3D Max, Photoshop, Illustrator, MS Office, 글 등 설계 및 관련 업무에 필수 소프트웨어들을 학교 모든 곳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건축교육이 펼쳐지고 있으며, 통상적인 교과과정 외에도 건축설계 중심의 교육을 위해 마련되는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적지 않다.

지속적인 [초청강연회]와 건축행사

우리 학과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매년 4~6회에 걸쳐 이 지역 최고의 초청강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국내 유명 건축가는 대부분이 이미 참여하였고, 최근에는 주로 신진 유명 건축가들을 초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초청강연회는 학생들에게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는 매학기에 전국의 유명 현대 및 전통 건축물을 답사하고 있으며, 일본 및 중국 등 해외로 건축 답사를 다녀온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진행 프로젝트별, 스튜디오별, 동아리별 건축답사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건축답사(일본)

또한 최고수준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전통의 건축작품전은 2009년도에 21회째를 맞이하며, 이 지역 최초로 광주광역시청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호평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작품전」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설계 작품 PT 및 크리틱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 동문과의 대화와 한마음체육대회 및 MT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또는 지역 디자인캠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활발한 동아리 활동

우리 학과에는 특색있는 4개의 동아리가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건축을 탐구하는 [가람], 건축디자인을 공부하는 [호박돌], CAAD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모인 [뷰포인트], 건축이미지를 연구하는 [칼럼] 등이 바로 그들이다. 각 동아리들은 선의적 경쟁관계에서 동아리별로 다양한 건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을 전시함으로써 건축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선후배 간 두터운 인간관계와 눈높이를 맞춘 지식전달로 교육의 효과가 탁월하고 취업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건축가 민현식 초청강연회

뛰어난 건축설계 공모전 수상실적

우리학교 건축학과와 자랑거리 중 하나는 건축설계 공모전에서 매우 뛰어난 수상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수상한 실적을 간추려 보려고 해도 한정된 지면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다.

공모전 수상실적을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때, 우리 학과의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매년 최고의 수상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우수한 취업 실적 및 많은 건축사 배출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본교 건축학과 졸업생에 대한 건축설계사무소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졸업생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의 대형설계사무소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본교는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건축사들을 배출하게 되었고, 이들은 두터운 동문층을 형성하였으며, 이들의 적극적인 지원은 후배들의 사회진출과 작품활동을 위한 촉매제가 되고 있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학과장
윤대환 교수(dhyoun@gwangju.ac.kr)
(학과사무실 : 062-670-2649)



설계 발표와 크리틱



건축학과 작품 모형



설계스튜디오 모습

UNIVERSITY NEWS

'Architecture Members' 탄생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야구동아리



학교 박사과정)이 창단되었다. 주장 정인영(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재학)은 창단에 즈음하여 "좋아하는 운동인 야구를 통해 체력도 증진하고, 선후배간의 우정도 고취시키며, 문화건축학부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바야흐로 2009년 프로야구는 600만 관중의 대기록을 수립하면서 가히 황금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지역을 연고로 한 기아타이거즈가 해대 시절부터 이어온 대망의 'V10'을 달성하면서 이 지역의 야구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영향으로 사회인야구단도 부흥기를 맞고 있으며, 표면상으로는 크게 들어나지 않지만 많은 리그(1~3부 리그)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한 바람이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에도 고스란히 전해져 지난 2009년 11월에 17명으로 구성된 Architecture Members 야구단(감독 백건중, 동신대

목적으로 창단했다."라며, "신생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는 최단 시일 내에 동신대학교의 연고지인 '나주 사회인 야구 3부리그'에 가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Architecture Members 야구단은 창단 목적과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백건중 감독을 중심으로 17명의 선수들이 연습에 매진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에 운동장에서 그들의 땀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이병창 학생기자 (gayunara@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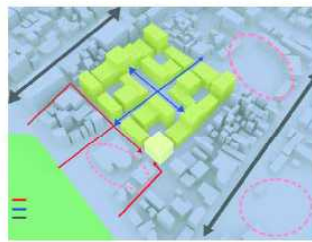
왕초보의 건축학과 생활

건축학부에 입학한지도 2년, 4년제로 치면 대학생활의 절반을 보냈으니 '벌써 2년'이라고 해야겠지만, 건축학 전공은 5년제인데다가 이수한 전공과목이 몇 되지 않아서 건축에 입문한지는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왕초보 건축인이다. 그래서 아직은 섀블리 건축인이라 자칭하기도 썩스럽다. 사실 어떻게 해야 건축인이라 불릴 수 있는지도 잘 모른다. 그저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선배들처럼 되리라 믿으며 학교생활에 열과 성을 다할 뿐이다.

2학년인 우리들은 지난 학기의 대부분을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1호관 11층 스튜디오A, B실에서 생활하다시피하며 보냈다. 김인호 교수님과 임경희 교수님의 지도로 「건축설계2」수업을 받았기 때문이다.

버겁고 힘들었다. 겨우 2학년인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강요하시는 교수님들의 주문이 버거웠고, 낭만적인 대학생활을 포기한 채 밤을 새워도 마감에 쫓기는 것이 힘들었다. 선배들의 경험담을 엿보다 엄살쯤으로 생각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하는 생각도 수차례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해냈다.

비록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성과물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성취의 희열을 맛보았다. 또한 많은 것을 배우



고 느꼈다. 아쉬움도 있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아쉬움은 줄이고 성취도는 높이고 말겠다'는 오기도 생겨났다. 이제는 알 것 같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건축인이 되어간다는 것을...

앞으로도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겠지만 건축입문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불안감보다는 웬지 모를 자신감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나가신 선배들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다.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이슬기 학생기자 (homin1004@nate.com)

광주대학교

2009학년도 2학기 초청강연회

한국 현대건축의 흐름을 알기 위해 매 학기마다 열리는 초청강연회가 2009학년도 2학기에도 2회에 걸쳐 이어졌다.

지난 11월 5일, 세간에 원빈의 본가로 회자되었던 'Route House'를 디자인한 (주)이템 건축사사무소 박희수 건축사는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기법을 통해 「현실적 건축과 도시 리얼리즘」이라는 주제로 서울이란 도시 이면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이를 현실적 건축과 연결시키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김중근 건축사김중근 건축사그리고 11월 25일에는 (주)앤드건축사사무소 김중근 건축사가 「건축과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통해 건축디자인이 새로운 디자인 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힘을 보여주었다.



박희수 건축사 김중근 건축사

조선대학교

건축학/건축공학 분리모집

조선대학교 건축공학부는 2008년도에 한국건축교육인증원의 건축학인증증을 받았고, 2009년에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건축공학인증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건축공학전공 60명과 건축학전공 30명으로 분리모집을 실시한다.

철·곤 강도 경진대회 특별상

한국콘크리트학회 주관으로 지난 11월에 열린 「2009년도 철근콘크리트 모형 휨부재 강도 경진대회」에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2개 팀이 참가하여 2개 팀 모두 특별상을 수상했다.

호남대학교

김홍식 교수 친환경건축 매진

친환경건축 연구에 매진했던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김홍식 교수(건축환경 및 설비 전공)는 그 실력을 인정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등에서 친환경건축 인증과 관련된 심의 및 자문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호남대학교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그린캠퍼스 계획에서도 에너지분야-냉난방설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전남대학교

2009 건축학부 성공취업캠프



전남대 건축학부에서는 2009년을 마무리하며,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건축학부 성공취업캠프」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선배들과의 대화 ▲친환경건축연구소 및 기업체 방문 ▲성공적인 이력서 작성법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클리닉 ▲1분 자기소개 클리닉 ▲면접클리닉 ▲효과적인 토론 및 PT 스킬 강화 프로그램 ▲성공취업 특강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 ▲모의면접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다.

동신대학교

건축사 장현수 초청강연회



지난 12월 10일 동신대학교에서는 방학을 맞이하여 초청강연회가 이루어졌다. 이날 강연에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모야마키 대표 장현수 건축사는 현실적인 건축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 흐름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역설하였으며, 배움에 대한 열정과 현실에 대한 적응을 주문하였다.

순천대학교

이동희 펜실베이니아대 교환교수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4학년 담당교수인 이동희 교수가 1년 동안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교환교수로 가게 되어 지난 12월에 출국했다.

200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답사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학생들은 지난 12월 22일에 국내최대의 건축행사인 '200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를 다녀왔다.



▶와이탄에서 바라본 푸둥쪽 사진(출처 : http://ko.wikipedia.org)

중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몸으로 느끼다

동아시아 3국 중에서도 가장 땅덩이가 큰 나라, 우리나라의 바로 옆에 붙어있으면서도 막상 자세히는 모르는 나라, 하지만 세계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 나라, 중국
학교에서 연수 기회가 있어 가게 된 이번 여행은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배우며 갖고 있었던 막연한 상상 때문에 더욱 설레었다.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밟고 중국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3~4시간 남짓.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점에서 새삼 가까움을 느끼게 되었고 천천히 둘러볼 여유도 생겨났다. 중국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날씨는 흐리고 약간 서늘한 편이었다. 습도도 높은 편이어서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가 확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건축환경공학에서 배웠던 열환경에 관한 것을 직접 체험했던 것이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강렬하게 받은 인상은 '발전이었다. 올림픽 직후인데다가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겹쳐 환율이 1:170~180에 이를 정도로 교환율이었지만(우리나라 2만원이 중국 100위안 조금 못 미치는 수준), 그 이전 수준인 1:100의 환율로 계산하더라도 상해의 물가는 비쌌다. 그리고 생활수준도 우리네 중산층에 해당하는 부류가 상당히 많아 보였고, 그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상해에 빼빼죽 솟은 초고층 빌딩들은 그러한 중국의 발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처럼 보였으며, 공항에서 도시를 가로지르는 시속 400km의 자기부상 열차 등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공사현장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방경제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말없는 표현으로 느껴졌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휘황찬란한 상해의 뒷골목에서는 우리 돈 5백원 정도(2~3위안) 밥을 먹는 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소주의 가장 큰 변화가라는 관전가(觀前家)에서는 앞뒤로 돌린 바지를 입고 꽃을 피는 소녀들과 구걸하는 노인들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움직이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속병 정도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일인당 소득 및 경제수준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했던 중국의 눈부신 성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많았다. 아직은 건축에 입문한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건축물에 대해 운운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익한 여행이었다. 중국의 발전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내 위치가 낮은 만큼 더욱 열심히 갈고 닦아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고,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깨우치게 되었다.

이제 방학이다. 새 학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한해에 대한 목표도 세워야 할 시기다. 되돌아보면 지난 3년간의 대학생활은 아쉬움도 많았다. 그러나 지난 과거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을 생각이다. 반성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그래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것은 철저히 극복하고 찬란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갈 것이다. 이것이 이번 연수여행이 나에게 던져준 메시지였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수정 학생기자 (rozen1@naver.com)

[Shall We Reading?] 독서!! 같이 하실래요?



이규태 著

『한국인의 생활구조』

- 衣, 食, 住 -



자랑할만한 문화적 지식의 부족에 대해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렇지만 이규태라는 작가가 우리나라 문화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되며 그 근본을 알 수 있기에

텔레비전을 자주 보지는 않지만 '무한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본다. 그 무한도전이 아이디어를 냈다. "How about BIBIMBAP for lunch today?" 라고 뉴욕 타임즈에 전면광고를 실어 한국의 비빔밥에 대해 전세계에 광고하는 것이다. 궁금증을 유발하여 다른 외국인에게 비빔밥이라는 한국전통음식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생각에 박수를 보낸다. 비빔밥하니 생각나는 책이 있다. 대학시절 어느 한 선배로부터 선물 받았던 3권의 책이었다.

이규태 著의 『한국인의 생활구조』란 책은 의·식·주로 구분되어 소개되어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오지만 우리만의 의식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고 이를 이론적으로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동안 우리네 삶에서 우리의 특징을 갖고

기본 좋아지는 책이다.

저자는 '우리에게 가장 밀착되어 있는 많은 것들의 의미며 뿌리며 내력을 알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의 의식주의 생활문화를 크게 삼층구조로 표현한다. 맨 아래층을 원시적인 샤머니즘의 심층, 중간층은 근대화 이전의 유교문화의 심층, 가장 위층은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화된 표층으로 이 세 층이 연결되어 오늘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쓰고 있다.

절제없이 쏟아지는 국제화된 사회에서 우리 생활문화를 구제하고 한국적인 것의 존재가치성을 논하며 현대 사회에 발전적으로 수용, 조화를 이루기 바라는 작가의 맘을 우리 건축인들이 받아들여 한국의 전통성을 다시 생각해 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문헌희 건축사 기자 (honeym@empal.com)

건축사 Gallery

원 추 리 꽃



2009년에는 세밀화를 배웠다.

세밀화는 말 그대로 색연필도 가늘게 깎아서 자세하게 그리는 작업이다. 하지만 색연필심을 돌려 가면서 (제도설계 하듯이) 그려 보았더니 거칠게 표현되었다. 2010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설렘이 있다.

이순미 건축사

세 · 상 · 옛 · 보 · 기



아~ 그리운 송례문이어!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마련한 '2009 대한민국 국향대전'에서 국화로 되살아난 송례문

할영, 서재형 건축사 기자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rld happen."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김 금 진
광주여성건축사회 회장
(주)신하건축사사무소

내가 어릴 적에는 눈도 비도 많아, 겨울이면 처마 끝에 투명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려서 뚱뚱한 몸통을 잘라 맛도 보고, 칼싸움도 했는데, 요즘은 고드름도 많이 볼 수 없지만, 공해 때문에 만지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 엇그저께만 해도 날씨가 너무 포근해서 기상청의 추위에 대한 예측이 틀리겠지 싶었는데 정확히 맞추더니, 슈퍼컴퓨터의 실력일까? 어제 오늘 추위로 도로가 꽁꽁 얼어 살금살금 기어가는 자동차의 뒤꽁무니의 하얀 연기가 겨울다운 모습을 느끼게 해준다.

이제 2009년의 달력도 마지막 1장을 남긴 채 새 달력에 자리를 내주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초(年初)에 세웠던 계획과 의지는 다이어리 앞쪽에서 겨우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으니 한 해를 마무리 할 때면 항상 반복되는 일이 된 듯싶다. 올 한해는 변변한 일조차 하지 못했으니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논 것도 아니다. 항상 일에 치여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쉬지 않았는데도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이다.

건축설계로 밥 먹고 살기는 힘든 것이, 아마도 IMF이후부터 계속되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달이 발생 하는 사무실 운영비, 각종 고지서와 카드 청구서가 쌓여 가면, 마음이 무겁고, 겨우 해결하고 한 숨 돌리던 또 한 달이 금방이니 건축문화 창달이라는 문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편히 자리 잡을 수 있는 때는 언제나 올까?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일은 어떠냐고 물어오면 불경기 핑계를 대고 말꼬리를 흐리는 게 인사

다. 그래서 현상유지만 하더라도 잘하는 편이라는 말이 일상적 인사다.

이런 생계형 고민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우리 협회에서 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이러한 노력의 열매가 회원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다고 모두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중에는 잘 되는 사무실도 있다. 나의 주위만 해도 잘나가는 선후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예지력과 현명한 선택, 남보다 많은 노력 등 남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때일수록 나를 개발하여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만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법정 스님 같은 분도 한 곳에 여러 날 머무르면 마음이 안일해져, 마치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듯 자신을 간장시키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말씀은 나를 뒤돌아보게 한다. 나의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짧으니 여유로운 마음은 아니다. 앞으로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겠다고 다짐해본다.

2010년 경인년에는 우리 건축사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자기만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모비명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한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rld happen."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5학년을 맞이하며...

이 태 헌 학생기자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며 두 주먹을 불끈 쥐어보았다.

세계건축가연맹(UIA)의 국제적 기준에 따라 몇 년 전부터 대학의 건축전공은 4년제와 5년제로 구분되었다. 기존의 4년제는 실무형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하는 건축공학 전공으로 자리를 잡았고, 창의적인 건축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건축학 전공은 5년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5학년 대학생', 그 흔하지 않은 '대학 5학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건축학 전공은 5학년이 졸업반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학생활 마무리와 동시에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다. 박성호(순천대학교 건축학부 4학년) 학우는 "5학년이 되는 2010년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한해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하고 크게 4가지의 목표를 세웠다고 했다. 첫 번째 목표는 5년간의 학과공부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건축기사 자격증과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삼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축역사이론 연구실의 후배들이 교수님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가는 BIM(3차원설계, 건축정보모델링)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를 할 계획을 세웠으며, 마지막 목표는 체력 향상이라고 했다. 그는 "시험준비와 취업준비 등으로 매우 바쁘고 힘든 5학년이 될 것 같아서 체력관리에 특별한 신경을 쓸 예정이다."라며,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천천히 하다보면 끝내는 계획했던 바를 다 이루리라 믿는다."고 말하

한편 정인수(순천대학교 건축학부 4학년) 학우는 지난 4년을 회상하며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 건축가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는데 벌써 5학년이다. 이제 뒤돌아 볼 수는 있지만 돌아갈 수는 없는 5학년이 되어버렸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구조와 기능 그리고 예술성을 함께 고려하다보니 나의 설계는 점차 현실 속에 파묻히게 되었고, 되는 건물과 되지 않는 건물을 구분하게 되었다."라며, "새삼스럽게도 1학년 때의 자유로운 연상과 고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설계를 공부하고 싶다면, 설계시간의 프로그램에 충실하여야 하고,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빠짐없이 마음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의문을 던져라. 답을 찾기 위해 애써라. 설계에는 답이 없지만 자신의 설계에는 답이 있다"라며, 최고학년으로서 후배들에게 주는 충고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5학년을 맞이하는 계획에 대해 "남은 1년 동안은 지금까지 배우고 느낀 것을 하나하나 꿰어서 세상에 선보일 준비를 하고 싶다."고 했다.

아직은 생소한 '대학 5학년 졸업반', 아무쪼록 5학년을 맞이하는 모든 예비 건축가들이 계획했던 바를 모두 이루어 내는 경인년(庚寅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0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편집위원 : 이순미, 서재형, 신영은, 정명환, 문현희, 김상현, 정영범, 정관성, 박종호
발행인 : 신정철 인쇄·제작 : 삼화문화사 T.062.222.6660
편집인 : 박홍근 광고신청 T. 062)521-0025
전담기자 : 박승국



표 / 지 / 설 / 명

현재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한 정보와 사실 속에서 얼마나 빨리 이루는가 하는 속도의 경쟁 보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방향, 목적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념에서 지금의 현상을 matrix 로 표현 한다.

건축사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탁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50만원

한진수 | (주)토방건축 건축사사무소 50만원

정태호 |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20만원

노진욱 | 종합건축사사무소 은강 20만원

유답 | (주)유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20만원

2010년도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사무식 "건축사 사무소 Group化 설명회에 관심 집중돼"

1월 6일 광주광역시건축사회 5층 회의실에서 신정철 회장 및 협회 임직원과 광주광역시건축사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사무식'이 열렸다.

이날 사무식은 지난 12월 28일 열기로 했던 월례회의를 이반 경인년 사무식으로 대체함에 따라 다른 해의 사무식에 비해 협회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신정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건설 경제 불황과 설계

시장 축소로 수많은 건축사회원들의 고초를 여실히 느낀다."며 "경인년 새해 호랑이 기운으로 이 역경을 함께 헤쳐 나갈 것"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사무식 막바지에는 '건축사 사무소 Group化 설명회' (발표: 심상봉 부회장이) 열려 Group化 모델화원사방문 및 운영실태보고와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이 논의 되어 건축사협회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곽승국 전임기자 (ksk830710@hanmail.net)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차관 초청강연회



지난 12월 17일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 광주도시건축문화포럼과 한국도

시설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초청강연회가 있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실상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지역발전 위한 제언을 설득력 있게 역설하였으며, 특히 지역발전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인구증가 대책을 역설하였다.

제14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광주개최

제13회 한·중·일 협의회가 중국 징강 산사에서 2009년 11월 23일(월) ~ 27(금)에 걸쳐 한·중·일 3단체 (대한건축사협회, 중국건축사관리등록위원회, 일본건축사회 연합회)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3국의 공동 관심사인 APEC등록 건축사현황 및 등록건축사 관련 법령제도, 국제건축실무와 관련한 학술교류, 행정정보교환, 건축 작품교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10년 제14회 한·중·일 협의회는 광주개최를 확정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광주건축사회가 2010년 대회를 준비키로 했다. 이번 회기에서 그간 다루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연계한 포럼, 학술 교류프로그램을 가지고 2010년 11월 광주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곽승국 전임기자 (ksk830710@hanmail.net)

동호회 소식 | Art



- 골프 동호회
- 남시 동호회
- 등산 동호회
- 미술 동호회
- 바둑 동호회
- 축구 동호회

광주 건축사 미술동호회는 1997년 그림을 좋아하는 21명의 사람들이 모여 시작되었다. 연혁12년째를 맞고 있는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의 2009년 야외스케치는 무등산, 구례 산동, 강천사, 백양사, 영광 법성포 등 남도의 정취를 따라 풍경을 담았다. 풍경을 돌아보며 내가 산이 되고 물이 되고 노오란 산수 유묵이 되어 돌아올 땐 캠퍼스에 그 산과 물과 내 마음이 동화되어 즐거움을 담아온다.

피우게 된다. 그동안의 미술작품들의 결실을 모아 2010년 1월 20일부터 북구청 갤러리에서 열두번째 전시회를 갖는다. 그림을 그리면서 건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나가고 싶은 동호회로서 회원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

소해원

김유지 건축사 (미술동호회 회장)

저탄소, 녹색도시·건축구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주최, (사)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저탄소, 녹색도시·건축구현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김익식 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광주시와 건축단체연합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 기조 강연은 김경배 인하대 건축학부 교수의 '녹색도시 에

코디자인 전략 : 지속가능한 주거단지계획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김연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실현방안', 양해령 광주시의회 의원의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정책', 황혜주 목포대 건축학부 교수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건축재료'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건축단체연합회 회원과 광주시 공무원, 건축학도 등, 각계각층의 참석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정관성 건축사기자 (0117696430@hanalos.com)

광주 건축계 동정

- *재개업**
 - 11월 26일 김기영 건축사 (GY 건축사사무소)
 - (에스포유 건축사사무소/서구 농성동)
 - *전출**
 - 구 협 건축사(전남) (영광/성보 건축사사무소)
 - 최행욱 건축사(전남) (나주/건축사사무소 건우건축)
 - 조용조 건축사 (한일 건축사사무소)
 - 문현희 건축사(전남도교육청 건축공무원) (GM 건축사사무소)
 - *폐업**
 - 조용조 건축사 (한일 건축사사무소)
 - 문현희 건축사(전남도교육청 건축공무원) (GM 건축사사무소)
 - *변경**
 - 최 윤 건축사(소재지변경)
 - *부고**
 - 2009년 11월 24일 장길수 교수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 2009년 12월 30일 박광규 교수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2010년 1월 1일 임채중 건축사 (초현 건축사사무소)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남 건축계 동정

- *결혼**
 - 11월 21일(토요일) 양동범 건축사 (순천/동진 건축) 처녀
 - 11월 22일(일요일) 현수호 건축사 (담양/홍의 건축) 장녀
- *전출**
 - 9월 7일 안민순 건축사(광주) (개인/화순/원도 건축사사무소)
 - 9월 16일 양관식 건축사(인천) (법인/화순/주유업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입회**
 - 7월 30일 김정만 건축사 (개인/목포/에이엠지 건축사사무소)
 - 9월 24일 김세환 건축사 (개인/여수/토담 건축사사무소)
 - 11월 27일 서지훈 건축사 (개인/나주/건축사사무소 신도시)
 - 12월 1일 문정영 건축사 (개인/진도/에스비기업 건축사사무소)
- *휴업**
 - 7월 3일 정경래 건축사 (개인/진도/한남 건축사사무소)
- *주요사업**
 - 한옥설계 공모전 주관·개최 (09.07.01~09.08.31)
 - 한옥사진 공모전 주관·개최 (09.09.05~09.10.04)
- *전입**
 - 10월 1일 문성식 건축사 (개인/장흥/AUD 건축사사무소)
- *주요사업**
 - 2010년 4월 한옥건축 박람회 예정

최고의 친환경성과 내화성에 도전한다!!!

동일교역(주)은

成實, 正直을 바탕으로 책임시공 및 최고의 품질로 고객님의
최고의 기업으로 어디서든 ONE-STOP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NT판넬(고밀도압축패널)

DONGIL-S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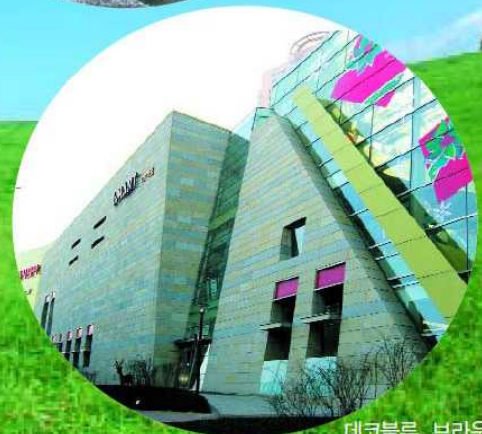
J골드

◆주요생산품목

- NT판넬(고밀도압축패널)
- 샌드스톤(레드, 베이지, 옐로우, 그레이, 바이올렛)
- 라임스톤(모카크림, 아줄그레이, 예루살렘골드)
- 그 외 다양한 석종보유

◆전문건설업 면허

- 석재품 가공 및 재단
- 석공사업



데코블루, 브라운

본사/하차장 천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빛리 5번지 TEL : 061)382-0681 / FAX : 061)383-6248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양재2동 275-4, 419호 TEL : 02)576-5234 / FAX : 02)576-5265

www.dongil-stone.co.kr



해남 파인비치 -그늘막



서울 오류고등학교-외장재



광주 첨단수임차매장-외장재



경남 통영 해저터널-지붕재



강원 평창 알펜시아-지붕재



경기 분당 하우스토리-프레임



전남 순천 상삼줄장소-지붕재



전남 여수 세관-외장재



모티스. 티센크루프 - Elevator

모재 : SIS, Cu, Brass, 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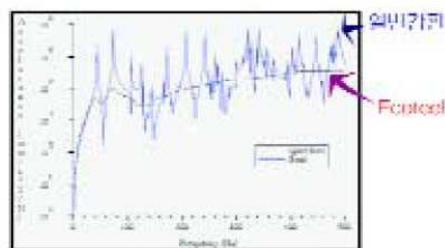
심반경 수지

부재 : GI, EGI, GL, CR



ecoteel

for your space **에코틸**



진동테스트

| Spec | 열확산율 m ² /s | 열전도율 W/mK |
|---------------|---------------------------|--------------|
| 일반 STS 0.8 | 4.837 | 14.262 |
| STS0.2+GI0.6 | 1.449 | 4.980 |
| 일반 Cu 0.7 | 45.303 | 150.514 |
| Cu0.1 + GI0.6 | 0.936 | 2.901 |
| 일반 CR 1.6 | 15.449 | 52.606 |
| CR0.8 + CR0.8 | 1.335 | 4.938 |

I Smile
해원 엠에스씨주
<http://www.hwmsc.co.kr>

본 사 :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4번지 TEL (061)759-2500
 영업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1232-8번지 TEL (062)956-2871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 10층 TEL (02)416-2903